교육자를 위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가이드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들어가며 04

추천의 말 06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은 인권이다

추천의 말 08
정답 아닌 질문으로 동료 되기

1장

학교에서 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1. 선생님에게 '성(性)'은 무엇인가요? 12

2. 성을 권리로 이야기한다면? 13
   *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통해 이슈 다시 보기

3.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학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19
   *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논의에 포함되는 영역들

건너가며 22

그럼에도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말하기 주저하는 순간들

2장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교육은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8
   - ① 좋아하는 쌤의 말은 더 잘 듣게 되니까
   - ② 동료를 내 편으로!
   - ③ 양육자와 동료 되기

2. 교육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8
   - ① 이미 있는 근거 활용하기
   - ② 교육과정에 한 줄 더하기

3.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42
   - ① 지금 하는 활동에 성적 권리 한 스푼
   - ②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들어가며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계급에 따라 아내와 시녀, 하녀로 나뉩니다. 마거릿 애트우드가 지은 소설《시녀 이야기》속 세상입니다. 소설 속 시녀 계급에 속한 여자들은 평생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강제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 등, 성적 행동,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소설 속의 남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선택받은 계급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시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선택권이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독자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소설 속 세상에 대해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모든 사람은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몸에 대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될 경우,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을 포함하여 개인의 신체적·생리적 건강, 성적 지향, 성적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은 타인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폭넓은 몸에 대한 권리,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권리의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침해받아 왔는지, 권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한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따져 보고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권리를 더 잘 향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앰네스티에서는 2013년부터 My Body, My Rights라는 이름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교육자를 위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가이드를 펼쳐 냅니다. 이 가이드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의미와 내용, 아동·청소년들과 나눠볼 수 있는 이야깃거리,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의 근거와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모든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모든 학교 현장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시나브로 퍼져 나가고 결과적으로 인권의 지평이 보다 더 넓고 풍성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은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교사

추천의 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은 인권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인권의 많은 영역을 다뤄온 앰네스티에서 《교육자를 위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가이드》를 제작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미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를 발간했고, 이를 한국지부에서 2014년에 《성과 재생산 권리 바로 알기 –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을 붙여 한국어로 발간했습니다. 인권의 프레임으로 성과 재생산권리를 논의하기에 척박했던 시기였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이슈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교육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피부에 와닿게 공감하게 하며,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책의 미덕은 크게 두 가지라고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의 프레임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교육이라는 말은 그동안 금욕, 순결주의, 위험예방, 보호주의, 훈계 등의 도구로 왜곡되면서 '권리'를 떠올리기 어려운 말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자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다룰 때 왜 성교육에 덧씌워진 낙인과 왜곡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말은 새삼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인권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와 교육기관의 역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으로 이 이슈를 다룬다는 것은 개별교사의 선택이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충분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권리와 건강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낙인 없이 정보를 다루고, 두려움 없이 고민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이러한 활동을 보장받고 장려받기 위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인권'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덕은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성적 권리를 인권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재생산 건강을 인구 조절을 위한 도구로 봐 왔다는 점에서 교육자가 새로운 관계 맺음을 고민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와 동료들과 양육자들과 동료 의식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성적 권리를 모두의 인권으로 인식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지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형태로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이유를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엔 성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며, 국가와 관계 당국이 책임을 회피할 때 권리의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인권의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이드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한 걸음 내딛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숙달된 전문가가 되거나, 큰 용기를 내거나,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시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료의 짐을 조금씩 나누고, 피교육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낙인과 차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가이드를 고심해서 만든 이들은 벌써 그 변화를 만들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손을 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

추천의 말

정답 아닌 질문으로 동료 되기

학교에 다녔던 청소년 시기를 떠올려 보면, 제가 만났던 교사들이 함께 관계 맺었던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속 NPC(non-player character)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궁금해했고 또 그 궁금증이 교사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자신이 교사로서 겪고 있는 시간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저에게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틈새에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제가 교사들에게 솔직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 역시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뚝딱뚝딱 해결해 주는 방법만이 좋은 교사를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받는 대상으로 고정된 위치에서는 학교 안 누구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권을 떠나,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생과는 다른 종류일지언정, 특히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겠지요. 앰네스티의 가이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과 고민 없는 '정답'만을 주어야 하는 세계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서로의 권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회와 학교에서 인권과 교육은 맞닿기도,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가이드에도 언급되었듯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경험의 총체는 곧 학교가 어떤 공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라는 세계관이 학교와 교실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그 변화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커다란 전환을 불러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가이드가 그 다정한 세계에 함께하자는, 동료 되기를 요청하는 초대장이면 좋겠습니다.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PART

01

학교에서 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01 학교에서 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1 선생님에게 '성(性)'은 무엇인가요?

수업이 막 끝난 쉬는 시간, 학생이 선생님에게 다가와 성에 관해 질문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성별과 관련된 것, 소중히 여겨야 할 몸에 대한 가치, 성과 관련된 이슈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성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동을 포괄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소통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딱 잘라서 성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다시 학생이 질문했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성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성은 무척 중요한 주제이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답을 했다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성을 하나의 권리로 이해해 접근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빼앗길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고 인간답게, 행복과 건강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몸을 인식하고 성장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삶을 구성해 나갈지 고민합니다. 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온전히 통합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권이자 기본권이 바로 '성적 권리'입니다.

2 성을 권리로 이야기한다면?

성을 권리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쌤, 성이 뭔데요?

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인 특성을 말해요. 성적인 특성은 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을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성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린 **성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쌤, 그런데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쉽게 설명하자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면서 아기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 수정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피임을 통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관계를 맺는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인공 수정을 통해 아기가 탄생하기도 하죠.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건강과 같은 여러 요소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재생산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자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쌤~ 학생이 연애해도 되나요?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격과 취향, 관심사,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 관계의 거리가 달라지고요. 그중 어떤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고, 거리가 가까워짐을 느끼는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성적 존재이니, 누군가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동·청소년 또한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등한 성적 권리를 가진 연인이 안전하고 즐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자주 묻거나,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교육자가 성을 기본권으로 인식한다면, 아동·청소년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적 존재로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질적인 성장을 돕는 시간이기도 해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자가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할 때 비로소 모든 교육 현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이란?

'SRHR'은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란, 단순하게 성과 건강에 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넘어,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의 신체, 감정,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얻기 위해선 즐거움을 주는 성적 관계에 더해, 어떤 이와 관계를 맺을 때 자존감과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신뢰 형성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요. 그렇기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위해서는 '몸과 관련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줄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신체 통합성을 침해받지 않으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
2. 자신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권리
3. 스스로 성적인 파트너를 정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갖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4.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결혼하거나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의)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6. 삶 전체에 걸쳐 위와 같은 권리를 추구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7. 또한 이에 있어서 차별, 강요, 착취,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적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통해 이슈 다시 보기

'깔창 생리대'를 권리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해당 사건이 보도 되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고, 후원금을 모으거나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일들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생리 빈곤'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앞다투어 알리고자 노력했고요. 이와 같은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빈곤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리대값이 비싸서 빈곤한 청소년과 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끊어내기 위해, 빈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디자인 참고: @zziziree

더 알아보기

왜 생리대에 매겨진 세금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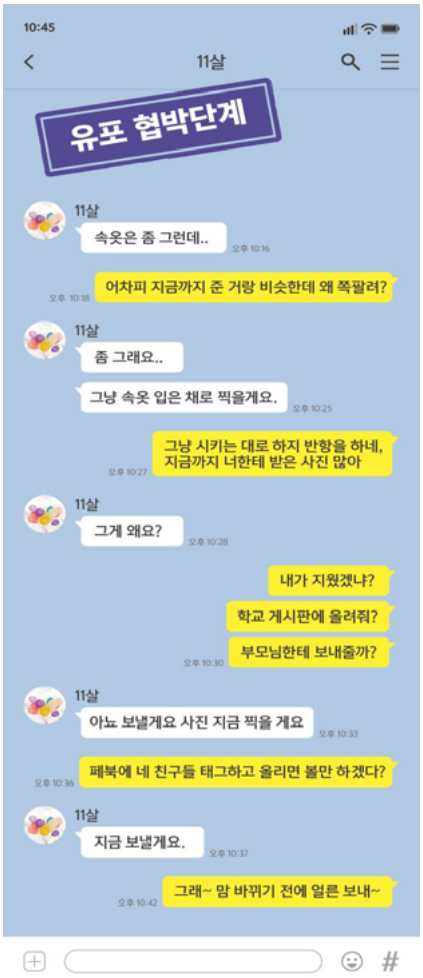
생리대는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위한 필수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유발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는 월경용품에 적게는 5%, 많으면 20%까지 부가가치세 혹은 판매세, 즉 탐폰세(tampon tax)를 부과해 왔는데요, 이에 각국 여성 단체들은 이러한 세금 조항들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철폐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폐지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러한 월경용품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월경용품에 대한 세금이 의무화되어 있는 EU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이를 기호 상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19%에서 7%로 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월경용품에 대한 판매 부가세를 면제하였으나, 독과점 구조와 제조 단계에서의 부가세 발생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생리대의 평균 가격이 약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제력에 따라 월경용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경용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심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이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이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생리는 월경, 생리대는 월경대, 여성용품은 월경용품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을 권리 침해로 접근한다면?

단톡방 성희롱, N번방, 박사방…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디지털·온라인 성폭력 사건에 많은 사람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요. 범죄근절과 예방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모두가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할 성적 권리가 온라인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성적 권리의 침해로 여기지 않고, 한 개인의 일탈이나 어쩔 수 없는 온라인의 특성으로 간주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반드시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실질적인 보장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은,

1.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2. 존중을 기반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의 의미를 실천하며
3. 구성원 모두의 성적 권리를 인식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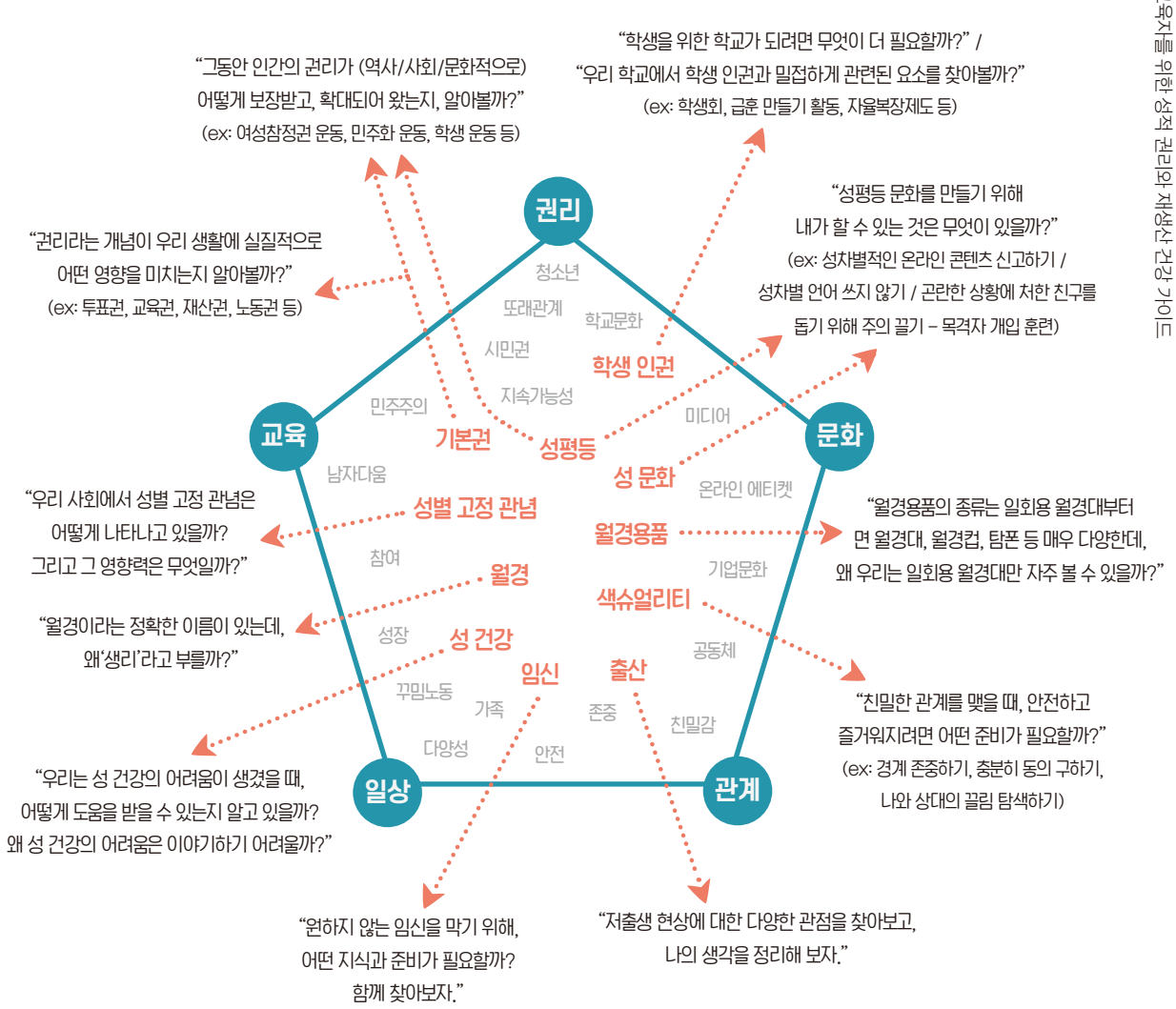
사회 전반, 특히 교육 공동체에서 먼저 나서서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3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학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은 성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존재가 아닌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정해진 답을 단편적으로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죠.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이자 재생산 건강을 누릴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자의 책무입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SRHR) 논의에 포함되는 영역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해 학생들과 아래 주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조혼과 원치 않는 임신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로 인해 여성은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꾸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교육에 접근하기 위한 문턱이 낮아지고, 재생산 건강이 중요하게 다뤄질수록 개인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통해 성적 권리 및 재생산 건강이 민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과 같은 성별 고정 관념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자는 차분하고 수동적이며 체력이 약한 편"이라는 편견이나, "남자는 힘이 왕성하고, 말이 거칠고, 성욕도 왕성한 것이 자연스럽다거나 월경에 대해 당연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견 말이죠. 이런 성별 고정 관념은 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강화하고, 타인과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재생산 건강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다른 성별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적 건강을 누릴 권리 또한 알지 못하게 하기에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일상 속의 성별 고정 관념을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고민해 보는 것으로 풍부한 논의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말하기 주저하는 순간들

선생님, 섹스가 뭐예요?

인권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해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질문은 여전히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려 해도 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까 봐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유독 학교를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01 나는 성평등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아동·청소년을 마주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교육 현장은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따라 역할을 담당하죠. 때문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교육을 '나'의 과업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 교사가 업무로써 관련된 일을 떠맡기도 합니다. 간혹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을 실천해 보고 싶어도 '젠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수업은 한 번도 안 해 봐서'라는 부담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자가 스스로 나의 전문 영역이 아니기에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권 교육이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도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성평등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02 저 선생님은 이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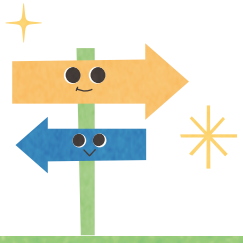
개별 교육자가 아동·청소년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충분한 역량과 용기를 가졌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교육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부 양육자를 비롯한 외부 단체의 민원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러한 민원으로부터 교육자를 보호할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교육 현장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관리자를 비롯한 동료 교사의 시선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으로 맥락화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는 교육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반감도 존재해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자와 아동·청소년 사이에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은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성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모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말하는 선생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03 아동·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존재야!

앞서 언급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청소년 보호주의'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의 큰 걸림돌입니다. 현대 사회의 아동·청소년은 더 빠르고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인의 시선에서 아동·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물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삶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칙만 보더라도 보호주의의 명목하에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아동·청소년 또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예요!



04 '성적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위험해!

한편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사랑과 연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성(性)'을 금기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성 엄숙주의'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성인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임에도 이를 다른 권리와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갈등으로 왜곡하는 일부 세력도 존재해요. 이러한 세력에 흔들리면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교육을 보편적 교육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협합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해요!

물론 교육자 개인이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PART

02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2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다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적 권리의 주체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 공동체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해 보이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1 교육은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 좋아하는 쌤의 말은 더 잘 듣게 되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무리한 부탁이라도 평소 나와 친했던 사람이 하면 '오죽하면 나에게 얘기할까' 싶어서 덜 귀찮고 기꺼운 마음이 생겼던 경험, 날 선 말이라도 개인적인 삶과 경험을 나눠온 사람이 하면 판단과 비난보다 '오늘 무슨 일 있나?' 걱정이 앞섰던 경험.

어떤 이야기에 설득력이 실리는 건, 메시지 그 자체의 무게와 중요함에서 기인할 때도 있지만 메신저에 대한 호감과 신뢰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라는 낯선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앞서 교사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에요. 앞선 장에서도 이야기했듯 '아동·청소년과 양육자가 내 말을 오해하면 어쩌지?',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진 않을까?' 같은 걱정과 함께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오류 없는 정보와 전문성보다는 신뢰하는 관계를 쌓는 일 아닐까요?

학기 초 또는 관계 형성의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선생님의 교육을 공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교육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다짐과 약속을 듣고 시작한 관계라면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이나 발언이 있더라도 '이 선생님 이상하네!'라고 쉽게 판단해 반발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 차분히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쉬울 거예요.

선생님의 다짐/약속 예시

아동·청소년인 여러분과 평등하게 관계를 맺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는 역할의 차이를 가질 뿐 위계의 차이는 갖지 않음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게요. 우리는 교육적 대화 속에서 언제든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안전한 대화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서로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동료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안과 밖에서 겪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동등한 연대로 함께 맞설 것을 약속해요. 언제든 고민과 의문을 나눠 준다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배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평등한 개인, 연대하는 동료로서 교실을 꾸려가는 동시에, 교실 속 폭력과 불평등으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올곧게 다짐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을 넘어 진짜 '안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육자와 아동·청소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권력관계를 늘 섬세히 살피며 '친절한 표정의 권위주의자'는 아닌지 성찰하는 교육자가 되어 주세요. 선생님이 어떤 말이든 물어봐도 되는 사람,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을 위험하고 몰라야 하는 것으로 접해 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자에게만큼이나 낯설고 두려울 거예요. 교육을 들으며 떠오르는 궁금증과 성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탐구하며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준다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논의가 교실 안에서 꽃피울 수 있을 거예요.

Tip 아동·청소년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면 좋을 TIP

1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 월경, 성병,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등 재생산 건강에 관한 사례, 섹슈얼리티와 성생활에 대한 탐구,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에 대한 선택 등 다양한 주제를 나눌 때 해당 사례의 당사자가 대상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보다 나의 문제라면 어떨지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실 안에도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해 주세요.

2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두려움을 이해해 주세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동·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낯섦일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반응이 없는 것은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내용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낯설어 움츠러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성 문화에서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더불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는 교육자가 가지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한다면 아동·청소년의 마음도 조금 더 쉽게 열리지 않을까요?

3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반발을 오히려 수업의 힌트로 활용해 보세요

교실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때 교육자에게 가장 악몽과도 같은 일은 아동·청소년이 장난을 치거나 혐오 표현을 발화하며 분위기를 망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낯선 주제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껏 억압되어 있던 '금기'를 이야기한다는 해방감에 아동·청소년의 과잉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고민해 왔던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픈 마음이 갑자기 솟아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반응을 역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 OO이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였어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발화의 기회를 넘겨보는 것이에요. 이야기에 앞서

> 모두가 함께 듣는 이야기이니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 해 주길 부탁해요.

라고 당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육자에게 짓궂은 질문이나 무례한 발언,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되묻기'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방금 한 말은 어떤 의도로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되묻기' 방법은 분위기를 망치고자 발화한 당사자에게 당황스러움을 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에 다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옳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자신의 발언이 옳지 않는 발언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4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편견과 실수는 그들의 탓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몰라서 해 왔던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실수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들이 지금 보이는 발화와 행동은 지금껏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진 혐오와 차별의 문화에 익숙해져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좌절감보다 아동·청소년과 만들어 갈 변화를 기억하며 힘을 내보아요!

2 동료를 내 편으로!

교육학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부산물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이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양식과 같은 경험의 총체를 말하지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문화풍토, 교육자의 인격적 감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더 반복적, 장기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학습의 결과가 항구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일상적 상황들은 너무도 쉽게 우리의 '상식'이 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적 권리에 대한 감각은 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일 년에 몇 시간 성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성평등한 사람,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이고, 무성적 존재로만 여겨지던 청소년이 비청소년이 되는 순간 마법처럼 갑자기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스스로 눈을 뜨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결국 매일 생활하는 교육 현장의 문화 속에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평등과 자유의 정신이 스며있어야 이러한 인권의 가치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의 피부로, 폐로,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 겁니다.

교육 현장이 인권을 이야기하기에 안전한 분위기를 가진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육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반응이 두려울 때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는 것, 내가 주춤할 때 한발 먼저 나아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사회에 깔려 있는 보수적이고 왜곡된 성 인식이 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기에 교육 현장 구성원 내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료에게 손을 안 내밀 수 없겠죠? 특히 학교는 수십 명의 교사와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말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아동·청소년이 만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는 수업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들 하지요. 나의 수업 안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말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 안 동료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러한 수업이 하나둘 늘어가는 일입니다. 더 많은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교육자가 청소년과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 안에서 동료를 찾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Tip 학교 안에서 동료를 만드는 TIP

1 "선생님~ 이것 좀 같이 봐주실래요?"로 다가가기

학교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 보자고 제안하는 일은 늘 두렵죠. 동료에게 고민을 상담하듯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학생들과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 반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해 봅시다. 많은 교육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친절함과 누군가를 도우며 기쁨을 느끼는 마음을 톡 건드려 보는 거죠.

제 수업에 한번 오셔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이와 같은 말로 슬쩍 손을 내밀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2 '3의 법칙' 활용하기

새로운 시도에는 세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둘이 셋이 되는 순간 의견과 주장에 힘이 실리는 '집단'이 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행동

에 동참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두 명의 동료를 찾아보아요. 뜻을 나누는 동료 셋이 모이는 순간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교원 학습 공동체, 교사 동아리처럼 공적인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3 학교의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 학교 만족도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학교 안에서 홀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두렵다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창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직원 간의 대화와, 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라는 말로도 작은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교직원 워크숍이나 교육평가의 자리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학교 안 민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양육자와 동료 되기

아동·청소년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고민은 양육자의 반발, 즉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되도록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양육자의 민원이죠. 양육자를 비롯한 외부의 반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나 교육기관이 앞장서 외부의 반발과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와 구조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교사들은 함께 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는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지만 민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양육자와 동료 되기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Tip 양육자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면 좋을 TIP

1 양육자가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성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온 기성세대의 양육자라면 학교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성에 대한 금기를 깨는 것으로 여겨 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자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성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양육자가 느끼는 불안이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주세요. 탐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이 과정은 양육자와 동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 아동·청소년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양육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이해합니다. 학교에서 괜한 것을 가르쳐서 몰라도 될 것 같은 성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성적인 호기심을 갖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하시죠? 양육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으면 좋겠다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랜 시간 수많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마주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위험한 순간보다는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 양육자님이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급격한 변화에 공감합니다. 양육자님도 처음 겪는 경험이기에 아동·청소년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될까 봐 불안하시죠? 제가 양육자님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함께 맞이하며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2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앞서 교육 현장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양육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너무 노골적이고 자위, 콘돔 사용법, 피임 등 아동·청소년이 몰라도 될 것 같은 내용까지 미리 가르쳐 조기 성애화를 조장한다."는 양육자의 편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동·청소년에게 성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통제와 관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이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의 성적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일부의 주장대로 "성교육으로 인한 '조기 성애화'가 문제"일까요? 실제로 훨씬 심각한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관련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쉽게 온라인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없이 포르노물이나 성착취물 등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적기는 초등 고학년 시기라고 해요. 고학년이 되면

미디어 활용 기회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은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에만 치중된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리면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그로 인한 책임의 무게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3 양육자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혹시 양육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의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너무 짧게 입는데 선생님께서 지도 좀 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말려 주세요.

저희 아이가 남자 친구랑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스킨십하지 못하게 혼내 주세요.

위와 같은 요청은 '아동·청소년 보호주의'와 '성 엄숙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양육자의 경우 성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금기시하고 통제하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은 양육자와 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지 않고 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뜻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돼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이해하고 아동·청소년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양육자가 많죠. "너에게 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아동·청소년이 "이건 내 권리야! 건드리지 마! 잔소리하지 마!"라고 하며 더 반항하고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권리는 기본권으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천부적인 것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권리가 없어지거나, 특정 시기를 거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식의 우려 또는 편견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는 권리를 가르치거나, 권리가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성은 관심거리입니다.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아동·청소년은 성을 숨기려고 할 때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집니다. 교사와 양육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적 권리 행사와 재생산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육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주세요

양육자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 교육자 또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교육자와 양육자는 같은 배를 탄 교육의 동반자라는 것을 안내해 주세요. 더불어 양육자와 꾸준히 소통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세요. 학교 소식지, 편지, 문자, 전화, 대면 등 어떤 형태로든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양육자와 교육자는 동료가 되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동·청소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교사는 없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학교 내에서 평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시고, 선생님을 믿어 주세요.

5 양육자의 민원을 변화의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도전과 변화에는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민원은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죠. 양육자의 민원을 피할 수 없다면 변화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선 과정을 통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양육자의 불안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뢰 관계를 쌓는다면 양육자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민원인으로 등장했던 양육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번 기회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3주체 수다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데 참여해 주시겠어요? '추천하고 싶으신 책'을 읽고 학교 성교육 방안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육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셨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적극적인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양육자에게 책을 소개하거나 독서 모임을 제안해 보세요.

양육자에게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소개해 주시면 양육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양육자와 독서 모임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양육자와 함께할지 망설여진다면 학부모회와 함께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학부모회에 독서 모임을 제안해 보세요. 처음부터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주제로 한 책을 소개하고 독서 모임을 진행해 보세요. 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학교에 학부모회실이 있다면 문고를 만들어 관련 책을 기증하거나 선물하시는 것도 좋아요.

© 홍화정

© 초록서재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소녀×몸 교과서 : 내 몸을 알고 싶은 모든 십 대 여성에게
윤정원·김민지 지음, 홍화정 그림, 우리학교, 2021.

남자 사전 : 별게 다 궁금한 사춘기 소년들을 위한 몸 안내서
니나 브로크만·엘렌 스퇴켄 달 지음, 망힐 비스네스 그림, 초록서재, 2023.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지음, 띵동, 2018.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주제로 '3주체 수다회'를 열어 보세요.

3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통해 '성'이라는 주제가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수다회를 개최하기 전에 교사, 학생(학생회), 양육자(학부모회)가 수다회 TF팀을 구

성하여 협의하고 진행하시면 3주체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깊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예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토크쇼나 라디오 공개방송 같은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시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수다회를 안내할 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든 초대장을 아동·청소년과 양육자에게 보내는 것도 좋아요. 수다회만 단독으로 진행하셔도 좋지만, 수다회 전·후에 관련 책을 소개하거나 저자 강연을 실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2 교육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 이미 있는 근거 활용하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유엔이 국가들에 강조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포괄적인 성교육은 성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커리큘럼 기반 과정.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 복지 및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UNESCO 외, 2018))'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가르칠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불가분하기에 어떠한 권리만 취사선택해 인정한다거나 교육한다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인권은 이미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성적 권리를 누리는 것,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을 자유 또한 인권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교육 주제라는 뜻입니다.

학교 안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근거가 되는 교육 관련 조항들

1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권리를 가르치고 서로의 건강과 자유가 지켜지는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 또한 포함되는 것이겠죠.

(2)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각 조항에는 성평등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 개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 성별 고정 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에 대한 교육,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편의 시설 및 교육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교육하려는 교육자에게 근거가 되어 줄 조항입니다.

2 교과별 교육 과정

(1)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국어과 성취기준 해설 중에서

[9국02-04] 이 성취기준은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략)

전통적인 문어 자료인 책이나 글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중략) **이때 특정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차별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통국어1, 공통국어2' 교수·학습 방향 중에서

토의·토론 및 협동 수업의 주제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고려하여 '공통국어1, 공통국어2'와 타 과목 간의 주제 통합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3) 중학교 1~3학년 사회과 성취기준 중에서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별 갈등 및 성차별, 인종(외국인) 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다루면서 지식, 기능 및 사고, 가치·태도 및 행동의 학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학급에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새롭게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각 교과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수업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타 과목과의 협업을 도모하여 이러한 주제들을 수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의 목표가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태도를 갖게 하고 소수자에 공감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가면 더욱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인 자율·자치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성과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자기 주도성과 민주 시민성 함양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이 아닐까요?

2 교육과정에 한 줄 더하기

우리 교육에서는 국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교육과정의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존재적 다양성, 이들이 처한 환경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권한을 이양해 더 학습자 중심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요. 학교 안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Tip 교사 교육과정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TIP

1 학급의 생활교육 방침, 교사 교육과정을 소개하기

신학기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학급에 게시하는 '우리 반 생활 안내' 등을 통해서 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인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알려보세요. 교사의 교육관을 알리는 동시에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는 교실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2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감을 얻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기

교육계획서, 편지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미리 안내하였더라도, 막상 본격적으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이럴 땐 가정통신문 혹은 사전 양육자 설문을 통해 동의와 공감을 얻는 과정, 교육에 대해 미리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보는 건 어떨까요? 교사가 여러 문항을 통해 학생, 양육자의 지식의 정도나 동의의 정도를 확인해도 좋고, 열린 설문을 통해 이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미리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성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육자 대상 설문/가정통신문 예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동·청소년이 가감 없이 드러내는 성적 언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성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디지털기기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접한 왜곡된 상식과 편견만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변화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교육 요구에 맞추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관한 교육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가정,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조사를 세심히 읽어 보시고, 우리 아동·청소년에게 유의미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아웃박스' 성평등 교실 수업자료

3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 지금 하는 활동에 성적 권리 한 스푼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가요?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요. 꼭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한 시간을 통째로 할애해야만 교육이 아니니까요. 아주 작은 말 하나를 던지는 것, 용어 사용 하나를 바꿔 보는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이나 교육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 어떤 교육의 방식도 차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창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성적 권리를 한 스푼 더해 보는 건 어떨까요?

Tip 이렇게 시작해 봐요 TIP

1 쉬쉬하던 말들에 이름 주기

월경 공결제를 활용하거나, 월경 관련 위생용품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그날' 또는 '마법'이라는 용어로 쉬쉬하는 경험, 또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누군가를 놀리는 상황.. 교사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거예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있어 이는 부끄러워 숨기거나 놀림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해 주세요. '월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건강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확한 이름으로 안내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2 교사의 옷차림, 공간 꾸미기 등으로 티 내기

학교라는 공간 안에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고민을 하는 학생, 성적인 선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찾아 헤매는 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어른 한 명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티 내' 주세요. 세계인권선언이나 평등과 다양성, 차별금지를 다룬 포스터를 교실과 교무실에 붙이거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6색 무지개가 담긴 스티커, 팔찌 등을 착용한다면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선생님을 '안전한 공간'으로 여기고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하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3 원래 하던 교육에 '성적 권리' 더하기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는 '인권'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혐오 표현이나 반차별 교육, 인권 교육 또한 많은 학교에서 창체, 또는 교과 수업의 주제로 다루고 계시죠? 이런 교육 때 가이드에서 말한 '관점' 한 스푼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권리의 주체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권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나의 성적 정체성과 내가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의 결정 또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포함해요.

함께 만드는 급훈, 존중의 약속이라는 공동체 활동 다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미 하고 계신 이런 관계 다지기 활동에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 한 조각만 더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성교육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동체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 학업성취, 장애, 인종, 출신, 전과 등을 이유로 서로 차별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폭력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로막는 폭력과 차별은 우리 교실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드는 두려움들이 있죠. 함께 마음을 돌아보며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다져 보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 나의 부족함이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오개념을 심어 주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들은 넣어 두어도 좋아요. 우리 모두 학창 시절 성적 권리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해요.

혹시 망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때요! 다시 해 보면 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만 제기는 교사만의 탓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이루는 성취가 모두 교사의 덕이 아니듯 말이에요. 학교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교육 만능주의'라는 판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관계 외에도 가정과 친구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다양한 결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도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차근히 시작해 봐요.

전문가가 아닌 내가 감히 도전해도 될까?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는 흔히 교과의 전문가로서만 학교에 존재한다고 스스로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청소년과의 상담을 이끌고, 생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통합교육을 이끄는 교사로서 특수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전문가가 되게 합니다. 이미 이 가이드를 펼쳐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충분한 '인권 옹호자'이며,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교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교사 또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더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바를 알리고, 교사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아요. 하나씩 용감히 도전하고 값지게 실패해 봐요!
이런 모든 순간이 모여 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공간 안에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되어 줄 거예요.
성평등을 지향하고 안전한 학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우리 함께 힘내 보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를 위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가이드
후기 남기기

더 좋은 자료 제작을 위해서 사용 후기 작성에 참여해주세요!

https://forms.gle/kk8dgp2AuauUWGvh7

참고자료

- 국제앰네스티, 성과 재생산 권리 바로 알기: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2012)

- 국제앰네스티, 성과 재생산권리: 알고 주장하기(2015)

- Amnesty International,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Module three –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2015)

- Guttmacher-Lancet Commiss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의 "Accelerate progres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Executive Summary(2018)" 및 MenEngage Ubuntu Symposium: I am because you are의 "SRHR and SOGIESC(2020)"

- 성평등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모임 '아웃박스', 성평등 교실 수업자료 〈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2022)〉

발행년도 2023년

발 행 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amnesty.or.kr

기 획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집 필 김병성, 김유진, 노효정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최창현, 한정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디자인·제작 시월의빛디자인스튜디오

-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함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의 차별 없는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남성과 남성성을 의제로 하는 페미니즘 단체입니다. 남성연대에 균열을 내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개국, 10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지지자,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인권단체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적·인종·종교 등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제 또는 복제할 수 없으며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